‘미스 함무라비’를 보내며…우린 모두 연결돼 있다

희망과 당위 건넨 여정 ‘유종의 미’ 거둬
생생한 인간군상…사회파 드라마 확장성
모두 같은 처지 함께 바꿀 수 있다는 웅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우리들의 영웅 이야기.”

JTBC 법조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봐 온 시청자라면 지난 16일 밤 전파를 탄 마지막회 마지막 신에서 묘한 감흥을 얻었을 법하다.

극중 주요 인물들이 과거 어딘가에서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지금의 인연에 이르렀다는 설정이, ‘우린 모두 연결돼 있다’는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상기시키는 까닭이다.

동명 원작 소설을 쓴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유석 부장판사가 직접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해 리얼리티를 극대화 한 ‘미스 함무라비’는, 매회 사법부 내 다양한 인간군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법조드라마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얻는다.

이들 군상은 비단 사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스 함무라비’는 사회파 드라마로서 확장성을 얻었다. 상명하복·출세지상주의와 같은 전근대적인 문화가 여전히 굳게 똬리 튼 한국 사회 여타 조직의 전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리라.

다만 그 배경이 사회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라는 점은, 현실의 사법부에서 이러한 행태를 목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문제의식을 남긴다.

이는 마지막회 에피소드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우리들의 영웅 이야기”라는 대사를 통해 변화에 대한 단순한 희망을 넘어 마땅히 그리 돼야 한다는 당위를 얻어내는 모습이다.

그 당위성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소” “과거가 미래한테 양보하는 게 섭리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선배들, “이번엔 부끄럽게 숨어 있지 않을게” “절대 너 혼자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손을 내미는 동료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뚜렷해진다.

방영기간 내내 배우 고아라가 연기한 박차오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여성들이 겪는 부조리를 부각시킨 점은 이 드라마의 남다른 미덕이다.

견고한 남성 중심 문화가 빚어온,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표현되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우린 모두 같은 처지’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미스 함무라비’는 웅변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마지막회 법정 신을 통해 정점을 찍는다.

남편의 무시무시한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살해한 여성이 있다.

이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지는데,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놓는 과정이 주는 여운은 강렬하다.

극중 배심원들의 토론은 공론장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킨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가 빚어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정·학교·군대 등 우리네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는 벌어지는 무수한 폭력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각자 처지에서 버겁게 떠안고 있는 커다란 절망과 분노가, 실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함께 바꿔 가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 말이다.

‘미스 함무라비’ 마지막회가 자체 최고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수도권 5.9%, 전국 5.3%)을 경신했다는 소식은 앞으로도 이 드라마를 보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마지막회에 등장한 대사를 오롯이 빌리면, 이 드라마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지만, 놀랍게도 아주 가끔은 세상이 바뀐다.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과함께2’, 더 깊고 방대해졌다

지난해에 이은 쌍 천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김용화 감독)이 각 캐릭터 개성을 담은 포스터 6종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마요미’ 마동석이 새롭게 투입, 강렬한 인상으로 전 편의 출연자들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1부와는 사뭇 달라지고 깊어진 캐릭터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환생을 걸고 불가능해 보이는 원귀 수홍(김동욱 분)의 재판을 결정하며 모두의 의문을 자아내는 강림(하정우 분), 1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연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과거의 기억을 찾으려는 일직차사 해원맥(주지훈 분)과 늘 망자의 안위가 먼저인 월직차사 덕춘(김향기 분), 천 년 동안 48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며 정작 자신의 기억은 없었던 두 차사는 성주신(마동석 분)을 만나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간다. 차분해진 해원맥과 따뜻함과 함께 슬픔이 느껴지는 덕춘의 미소가 그들의 천 년 전 사연에 궁금증을 더한다.

오랜 시간동안 인간들의 곁을 지켜온 성주신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망자 허춘삼을 저승 차사들로부터 지키던 중 이승에 내려온 해원맥과 덕춘을 만나게 된다. 천 년 전 해원맥, 덕춘을 저승으로 데려간 차사였던 그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허춘삼과 그의 손자 현동을 지키고자 한다. 그가 들려주는 저승 차사들의 과거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또다른 울림을 줄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원귀이자 마흔 아홉 번째 귀인 수홍은 강림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간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강림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의 사연을 캐물으며 극에 긴장감을 더한다.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시선을 압도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가 마지막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예정이다.

영화사 관계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저승 세계와 망자가 겪어야 하는 7번의 재판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던 ‘신과함께-죄와 벌’에 이어 ‘신과함께-인과 연’은 저승 삼차사의 숨겨진 과거와 그로 인해 이어진 인과 연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과함께-인과 연’은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것으로 오는 8월 1일 개봉한다.

“기획만 3년”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이유있는 자신감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결이 다른 드라마다.

25일 SBS 새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극본 천성일/연출 부성철/제작 더 스토리웍스, IHQ)가 첫 방송된다. 대한민국 최고 이야기꾼 천성일 작가와 탄탄한 내공의 부성철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윤시윤, 이유영, 박병은, 나라, 성동일, 허성태, 김혜옥 등 특별한 배우들이 출연한다.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판사와 법정을 무대로 한 드라마다. 우리는 그간 주인공이 검사, 변호사, 판사인 드라마를 셀 수 없이 많이 봐왔다. 익숙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새롭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야심 차게 안방극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

이와 관련 ‘친애하는 판사님께’ 극본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는 작품의 기획의도를 언급했다. 천성일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규제와 틀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완벽할 수 없기에 누구나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규제와 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나는 바꾸려 할까? 바꿀 수 있을까? 이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답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만드는 법 역시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종종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누구나 쉽게 그 불합리함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밑바닥 인생 주인공 한강호(윤시윤 분)에게 작지만 이런 불합리함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것이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현실적으로도 와 닿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동시에 여타의 드라마들과 결이 다르고 궤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 이야기꾼 천성일 작가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드라마의 기획에 공들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제작진 및 배우들이 뚝심을 갖고 답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결이 다르고, 궤가 다른 드라마라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똘똘 뭉쳐서 시청자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배우 및 제작진의 열정, 자신감이 모여 완성될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첫 방송이 기다려진다.

한편 SBS 새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판사의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훈남정음’ 후속으로 오는 7월 25일 첫 방송된다.

아이콘, 8월 컴백..미니앨범 ‘뉴키즈:컨티뉴’

아이콘이 8월 2일 컴백을 예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6일 아이콘의 컴백일을 8월 2일로 알리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 속 ‘청폐미(청순, 퇴폐, 아름다움을 합친 신조어)’ 폭발하는 7명의 아이콘 멤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새 미니 앨범 ‘뉴 키즈 컨티뉴(NEW KIDS:CONTINUE)’는 2017년 5월 ‘뉴 키즈 비긴(NEW KIDS:BEGIN)’, 2018년 1월 ‘리턴(RETURN)’에 이어 시리즈 3부작의 완결판으로 열정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지난 1월, 정규 2집으로 컴백해 가요계 보이그룹 10년사를 새롭게 탄생시킨 아이콘. 메가 히트곡 ‘사랑을 했다’ 활동을 통해 무려 43일 동안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음원 차트 정상을 기록하는가 하면, 6주 연속 주간차트 1위까지 휩쓰는 등 1분기 가요계를 완벽히 집어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음악 방송을 통해서도 자체 최다 트로피를 수집했다. 아이콘은 통산 11관왕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며, 팬덤과 대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대성공했다.

이도 모자라 17개국 해외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QQ뮤직 KPOP 주간차트 4주 연속 1위, 일본 아이튠즈 앨범 종합 차트 1위 등을 싹쓸이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역시 맹활약했다.

발매 반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랑을 했다’는 주요 음원차트 안에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떼창곡’으로 꼽힐 만큼 신드롬급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아이콘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가요계까지 연타석 홈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음력 6월 7일)

▶쥐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으니 심신이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다. 결국 이럴까, 저럴까 구상만 할 뿐 아무것도 벌이지 못하는 처지다. 의류제조업자는 3, 10, 12월생 토끼, 소, 용띠 친족과 동업해도 좋으나 그 외에는 함께하지 말라. 동쪽이 길하다.

▶소띠 한꺼번에 잡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둘 씨앗을 뿌려 거두라. ㄱ, ㅂ, ㅍ 성씨는 애정을 쉽게 생각하면 이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된다. 행동을 바로 하라. 7, 8, 9월생 파란색은 금전을 쌓게 하지만, 노란색은 하는 일을 힘들게 만든다. 피하라.

▶호랑이띠 ㅂ, ㅊ, ㅎ 성씨 한 고개를 넘으니 다른 고개가 기다리는 격이다. 짜증스럽더라도 포기하지도, 신념을 굽히지도 말라. 애정은 길하다. 더 큰 것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서로 깊이 사랑하겠다. 1, 5, 7월생 자녀에게 더욱 신경 쓰라.

▶토끼띠 한 가지 일을 두고 여럿이 경쟁할 수다. 작전상 후퇴하는 것도 지혜임을 알라. 4, 6, 11월생 현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나 무한한 힘과 성장력을 갖고 있으니 힘껏 노력하라. 자동차, 전자업종은 서서히 운이 열리니 인내해야 한다.

▶용띠 ㄱ, ㅊ, ㅇ 성씨는 나를 믿는 상대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지금까지 힘든 날들이었다. 모두 떨쳐버리고 내일을 위해 전진할 때 사업과 애정에 웃음꽃이 핀다.

▶뱀띠 내 위치와 체면을 세우려다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우쭐함,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 3, 9월생 ㅅ, ㅂ, ㅎ 성씨 나를 돌아보고 실속을 차리라.

▶말띠 1, 7, 9월생 새로운 길을 찾으려다 더 큰 상처를 입는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울증에서 시달릴 수 있다. 나를 잘 추슬러야 한다. 분수를 지키며 같이 사는 사람에게 더욱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라.

▶양띠 마음속 방황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할수록 나도 상처받게 된다. 2, 5, 10월생은 이성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 와도 담대하게 뿌리치고 내 길을 묵묵히 가라. 모두를 위해서다.

▶원숭이띠 이성을 사귀는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귄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식 이성교제는 하지 말라. 2, 5, 8월생 부동산, 증권은 투기성이 강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장기 투자를 삼가라.

▶닭띠 하는 일이 힘겹다고 짜증 내지 말고, 늘 웃으라. 중심이 흔들리면 가정불화는 물론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 3, 12월생 남의 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속 차리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

▶개띠 애정은 불안감과 허무함이 맴도는 시기다. 사랑은 문득 외로워진다. 잘못하다 다른 곳에 눈 돌릴 수 있다. 친한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2, 8, 11월생 증권, 도박, 투기에 손대지 말고, 안정성 있는 데 투자해야 손실을 면한다.

▶돼지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부터 챙기라. 7, 9, 12월생 남의 것을 넘보다 아까운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왜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자제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재인식하라.